

2007년 세계빈곤퇴치를 위한 “1017 화이트밴드 콘서트”

I. 개요

- 일 시 : 2007년 10월 17일(수) 19:00 ~ 22:00
- 장 소 : 여의도 공원
- 주 최 :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KBS
- 후 원 : KOICA

II. 행사 내용

10월 17일은 1992년 UN이 지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로서 전 세계인들이 빈곤퇴치의 필요성에 대해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다. 120여 개국의 NGO

들이 MDGs 달성을 위해 세계적 연대기구인 GCAP(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를 결성했고, 한국에서는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가 대표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KOICA 총재는 격려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자리바꿈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임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경험을 되살려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참여와 국민들의 지지가 중요함을 언급했다.

2007 세계빈곤퇴치를 위한 “1017 화이트밴드 콘서트”

- 10. 17(수) 19:00, 여의도공원 -

KOICA 총재 빈곤퇴치 메시지

10월 17일 오늘은 1992년 유엔이 “세계빈곤퇴치의 날”로 제정한 뜻 깊은 날입니다.

21세기 우리 인류는 경제적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전 세계 인구 여섯 명 중 한명은 하루 1불 미만의 절대적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엔은 지난 2000년 세계 절대빈곤 인구를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천년개발목표(MDGs)를 채택하였습니다. 유엔이 채택한 천년개발목표는 세계 빈곤퇴치를 위한 인류 최초의 국제적 약속이며,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낸 우리의 성공 뒤에는 국제사회의 따뜻한 도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절대적 빈곤을 탈피하여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전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국제사회에서 “나눔과 상생”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세계빈곤퇴치의 날”을 맞이하여 “일어나 외치자! 지구촌 빈곤퇴치!”의 슬로건하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려는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열정과 참여는 절대 빈곤의 절망 속에서 살고 있는 많은 지구촌 가족들에게 내일의 희망을 심어주는 큰 힘이 될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우리의 “나눔”은 보다 안전하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계를 만드는데 기여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신 장 범